

“혁신 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이 되어 뒤집어 보면 보인다”

혼 밥, 혼 술 등 혼자서 하는 것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방에 들어가서 혼자 밥과 반찬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남녀 할 것 없이, 주방에서 약간의 조리를 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과이다.

조리를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칼이다. 칼의 종류도 다양하다. 빼도 토막 낼 수 있는 두껍고 무거운 중국식 칼부터, 끝이 날카로워 안의 것을 잘 도려낼 수 있는 칼, 딱딱한 빵을 쓸 수 있는 톱같이 생긴 칼, 과일을 깎을 수 있는 조그만 과도, 회를 뜰 수 있는 회 칼, 그리고 이런저런 용도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여 다용도 칼도 있다. 칼 한 세트에는 4,5개의 칼과 가위, 칼날 가는 것과 함께 칼집이 있다. 칼 세트를 구입 시에는 칼집은 당연히 필수이다.

아래 사진 왼쪽 칼집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칼 두께와 폭만큼의 틈새 같은 구멍에 맞춰서 집어넣는 방식이다. 이걸 ‘문화적 습관’에서 그대로 내려왔을 것이다. 고대부터 조리를 하는 주방에서부터 목숨을 건 전쟁터까지 칼은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였다. 특히 칼을 현대 시에는 칼을 보호하기 위해 칼집은 필수품이었다.

그 수 천 년 전부터 칼 보관을 위하여 조그만 구멍에 집어넣는 행위는 문화적 습관으로 고착하였다. 이런 것엔 어느 누구도 의구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이 문화적 습관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을 한다.



▲왼쪽은 흔히 볼 수 있는 칼집, 오른쪽은 저자가 디자인한 칼집

주방에서 일을 마치고 칼을 칼집에 넣을 때 조그만 틈새에 집어넣는 일은 짜증이 나는 일이다. 더 쉽게 넣을 수만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문화적 습관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 이것을 과감하게 깨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디자이너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깨는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편한 것을 위하여 인류는 발전하여 오면서,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 습관’이라 하여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더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우를 범해 왔다.

혁신적 디자인을 위한 첫 번째는 ‘문제 다시 보기’이다. 과연 이런 ‘문화적 습관’이 편하고 합리적인가? 아무리 보아도 이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빨리 일을 마치고 쉬고 싶은데, 칼을 신경 써서 틈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여간 신경이 쓰인다. 이 방식보다 안전하며 더 간편하게 집어넣는 방식을 생각하면 된다. 문제가 명확하니 풀면 된다. 수많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끈기를 가지고 풀면,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사진의 왼쪽은 흔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디자인이고, 오른쪽은 저자가 디자인한 것이다. 더 쉽게 칼을 칼집에 넣는 방식을 생각, 조사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문화적 습관의 고착에서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디자인이 보이는 시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이 되어 뒤집어 생각하면 보인다.** 혁신은 남들이 하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기존의 개념을 완전 깨뜨리고 뒤집어 보는 의지가 필요가 있다. 그런 디자이너이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